

전남 '청년인구 유출' 5년째 증가세... "여수 많고 광양 적어"

광주전남연구원 "교육과 일자리 찾아 수도권 이탈이 원인"

최근 20년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 '여수·목포·고흥' 순 많아

전남지역 20~34세 청년 순유출 인구가 5년째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전남연구원이 제공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이슈&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 간 시·군별 청년인구 누적 순유

출은 여수시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광양시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감소 위기지역(16개군)이 포함된 전남의 청년인구 순이동자 수 통계(2000~2020년)를 바탕으로 자

료를 분석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청년인구 누적 순유출은 여수시(3만7868명)가 가장 많았고, 목포시(2만4394명), 고흥군(2만152명)이 뒤를 이었다.

전남 시·군 중에서는 광양시만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순유입이 이어졌다.

연도별 청년 순유출 인구수를 살펴보면, 2002년(2만6741명)이 가장 많았던 시기로 분석됐으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5년

(4323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또 청년 연양인구(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1일의 인구수) 대비 전남의 평균 순유출율은 약 3.21%로, 고흥군(8.35%)이 가장 높고 곡성군(7.70%), 보성군(7.16%) 순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순유출율이 높은 지역은 2016년 장흥군(20.85%), 2002년 강진군(16.60%), 2020년 구례군(15.23%) 순으로 나타났다.

민헌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

센터장은 "국가불균형 성장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민국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하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청년인구가 교육과 일자리, 더 나은 생활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지역으로 옮겨가는 사회적 유출이 전남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년에게 기회와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가 가능한 전남의 가치 재창출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집 대신 작은 텐트 안에서'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5년간 67명... 절반은 MZ세대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이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은 조직문화 혁신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소방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은 67명으로 연평균 13.4명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 10년 이내가 전체의 46.4%를 기록했으며, MZ세대(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49.3%로 컸다.

연도별로는 ▲2017년 15명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12명 ▲2021년 17명 등이다. 올해도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환경조성 ▲조기진단 ▲집

중관리 ▲치유지원 등 4개의 추진전략으로 구성된 대책을 마련, 적극적 개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MZ세대 직원과 소방관서장이 만나 세대 간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젊은 세대가 멘토가 돼 선배 관리직에게 조언하는 활동이다.

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근절하기 위해 익명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원클릭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이 자주 발생하는 고위험 시기(5~9월)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 심리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상담·처치를 위한 직장 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4개 권역(강원·전북·경북·충북) 11개 소방서와 서울대학교병원 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우울증·외상 후 스트레스·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의 상담·진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이홍교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 위기에 처했을 때 모든 동료의 관심과 공감으로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이르면 내주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르면 다음 주께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금(김 여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최종 법률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여사에게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김 여사는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초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르면 내주 중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 이 대표에게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오는 18일 한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이 사건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대해 접견 방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 청장은 김 여사 사건과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던 강일구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최근 인사에서 서울 성동경찰서장으로 전보된 것과 관련,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청장이 이 대표 사건을 놓고 강 전 대장에게 "왜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공개 질책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서의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져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80대 치매 노인, 하루 만에 가족 품으로

광주에서 한밤중 사라진 80대 치매 노인이 하루 만에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견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20분께 동구 소태동에서 A(83)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소태동 소태역 시외버스 정류장에 가족과 함께 내려 '잠시 어디 들렀다 온다'고 말한 뒤 집에 들어오지 않았

다. 경찰은 A씨가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20여 명을 투입해 소태동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주변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공사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에게는 단순 찰과상 이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